

P  
205  
7337  
14268

# 高麗神學報

第26輯



 고신대 학교

高麗神學大學院



EM00111311

# 高麗神學報

## 목 차

第 26 輯

1980년 12월 1일 창간

1994

서 문/ 4	김 병원
설교의 미련한 것으로/ 6	김 서택
변화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연구/ 25	강 강영
현대의 핵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56	박사무엘
부록/ 창세기 9:1-17 주석 / 103	
주후 1세기경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귀신들린 자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114	권 영재
임상목회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상담방법/ 137	하 원식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 연구/ 180	정 일권
편집후기/ 230	

## 고려신학보 제26집 발간에 붙여

김 병 원 교수

(고려 신학대학원 원장)

고려신학보의 성격은 고려신학대학원의 totality(정체성)와 관련되어 있다. 본 대학원은 성경에 근거한 개혁주의 신학(신앙)의 원리를 그 이념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 논문집에 실린 글들을 잘 살핀다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성경'을 신학의 주 재료로 삼았다는 것이다. '성경'안에서, '성경'으로부터 주어진 열매들이다. 개혁신학은 열려진 성경안에 살아 있는 보화들을 캐내어 성령의 조명아래 그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작업이다.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성경신학'의 관심은 종교개혁 이후부터 생겨나서 여러 모양으로 발전 혹은 변질되었다.

1. 거짓된 로마교전통과 인본주의 교리로 가로막혔던 성경의 가치와 권위가 Luther와 Calvin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의 헌신으로 다시금 회복되었다.

2. Kant 철학의 영향으로 근대사상의 흐름이 혼탁해졌는데, 그의 사조는 신앙을 단지 공동체의 유익으로 진리를 상대주의화 시켰다. 따라서 이 즐기인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절대규범으로 삼지 않는다.

3. Post-modernism(포스터 모더니즘)과 Religious Pluralism(종교다원주의)를 포함한 현세대의 혼탁한 신학사조들 또한 성경을 절대가치로 인

정하지 않는다.

4. 근간에 본 교수회의 노력으로 새번역성경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너무 많은 부분이 인위적, 비성경적 해석으로 오염되어 있다. 그것은 권위있는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흐리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과 신학들은 시대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성경을 기초하는 개혁신학은 변함없는 체계와 주장을 가진다. 미국의 저명한 실천신학자 R. B. Kuiper박사는 "Calvin 이후 400여년 동안 우리의 신학연구는 Calvin을 넘어 넓고 깊게 전진하지만 아직도 Calvin과 대립되는 요소를 갖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개혁주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개혁신학의 가장자리에 서는 길은 험난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을 사랑하는 신학도들에게 부여된 과업이 아닐까

여기 믿음과 땀으로 고려신학보 26집이 엮어졌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옥같은 마음과 신앙고백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곧 본교와 고려신학보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고려신**

**학보**

# 설교의 미려한 것으로

(일선 목회자의 강해 설교 원리와 방법)

김 서택 목사 (서울 제자들 교회 시무)

1장/바른설교의 장애	2장/강해설교의 개념
3장/강해설교의 여러 입장	4장/강해설교의 준비
5장/강해설교의 전달	6장/결론

## 1. 바른 설교의 장애

의사가 가진 모든 의학 지식은 그가 실제로 환자들을 만나서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그 병에 대한 처방을 내리거나 수술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용된다. 만약 의사가 가진 많은 의학 지식들이 실제로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의사가 가진 많은 지식은 아무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는 그의 모든 신학 지식과 인격이 교회라는 장(場)에서 설교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지식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사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들의 만남은 주로 설교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심방이나 개인적인 면담 또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만남은 예배와 설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대부분의 교인들은 좋은 설교를 듣기 원한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대부분 좋은 설교를 하기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자기 목사님의 설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목회자들 자신도 자신의

1) 로이드 존스 목사는 자신의 40년 목회 경험을 통하여 볼 때 교회 안에서 바른 설교가 이루어진다면 목사는 교인 개개인을 만나서 면담하거나 상담하는 수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교인들 스스로가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해답을 찾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목사와 교회의 일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를 설교에서 찾는다. 로이드 존스, 목사와 설교, 서문 강 역, p39.

설교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청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날의 청중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 하는 문제이다. 오늘날 청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듣기 원하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잘라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참으로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고 그 욕구에 맞지 않으면 설교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교인들은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을 자신의 이성애 둔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일단 들어 보아서 납득이 가고 마음이 와 닿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옳고 바른 설교이며, 자신의 생각과 틀리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에 도전을 주면 그것은 옳지 않은 설교라고 규정지어 버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일단 교인들의 귀를 잡아 놓지 않으면 아무도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설교자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는 것보다 청중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하느냐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결과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죄의 회개」를 축후하는 설교는 하지 못하는 '병어리 개'가 되고 만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교인들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억압되어지거나 강요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설교단이 높이 있고 그 위에서 한 시간씩 설교자 혼자 떠드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 이들은 한 시간씩이나 끔찍하지 못하고 앉아서 목사의 좋지도 않는 소리(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이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목사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자기들과 같은 수준에서 진리에 대하여 토론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가 결정자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책망하고 삶을 바꾸기를 요구하는 무거운(?) 설교를 마음 속에서부터 거부한다.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일이었다.

고린도의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다. 고린도인들은 수학적적인 웅변을 좋아하고 철학적인 사색을 원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1:21)라고 증거 하였다.2) 고린도인들의 이같은 사고 방식은 설교를 「단순히

정보를 입수하거나 설교자를 통한 위로의 경험수단」으로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설교를 통해 신앙의 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신앙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영혼에 충격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말씀으로 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며 「자기」라는 존재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한 분을 의미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

이 일이 어떻게 가벼운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말씀이 그에게 충격이 되어야 한다(설교를 통해서).

그러나 청중들은 점점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면 청중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니까 목회자들은 말씀대로 설교하지 못하고 자꾸 청중들에게 끌려 다니게 된다.

다른 하나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본 문제이다. 즉 목회자는 주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위임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교에 매달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목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인을 돌보고 잘 관리하는 일에 열중할 것이다. 사실 '설교'와 '목회'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오늘날 설교의 능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목사가 설교만 하고 자기 교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지극히 무책임한 설교자이다. 목사는 교인들이 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또 선포된 말씀이 교인들에게 적절했는지 늘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 목회자는 설교를 통하여 자기 양무리들을 먹여야 한다. 좋은 설교를 계속 공급하면 마치 꿀을 잘 먹은 양처럼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기쁨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설교를 포기하고 교회의 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또 설교에 대한 관심도 참으로 양무리를

2)원문의 '케류그마'는 '선포'의 의미도 있고 또 그 선포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 모두가 관계된다고 본다. 즉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선포 내용과 방법 모두를 미련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전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Preaching'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것을 필자는 '설교의 미련한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먹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설교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같은 목사들의 마음에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히트를 쳐서 나도 대형 교회를 책임지는 '성공한 목사'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정직하지 못한 자세가 설교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설교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뜨거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설교자 자신의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싶은 정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의 설교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예비 목사(목사후보생)들은 자신의 부르심과 역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조급하게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충분한 훈련과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의 설교 스타일을 흉내내고 싶어한다.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오늘 아모스가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암 3:8)

## 2.강해설교의 개념

우리는 강해 설교가 무엇이나 하는 것을 정의하기 이전에 먼저 설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질문되어야 할 것은 '설교'가 과연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부연해서 질문한다면 '설교'는 '예언'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다<sup>3)</sup>.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계셔서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강의'가 더 맞는 말이 될 것이다<sup>4)</sup>.

3)성경에서도 '예언'을 단순한 미래 일을 알리는 '예고'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고전14:3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라고 말함으로 예언의 의미를 '상당'이나 '신앙적 권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설교'와 '강의'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할 것이다. 단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는 '기술'로서의 설교이다. 만일 설교가 '예언'이라면 이것은 그 사람의 준비나 훈련 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노력과 훈련에 의하여 더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예언'으로서의 설교를 생각해 보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영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즉 성경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의 모든 인간적인 오류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어느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부분 부터는 인간의 말인지 검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안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사본에서 번역된 것이지만 우리는 사본의 보존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또 그 사실이 자료의 발굴로 입증되고 있다. 우리는 원문에 충실한 사본과 번역본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고 설교한다.

그러나 설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요 적용」이다. 우리는 이것을 '조명'이라고 부른다. 성경을 마이크로 필름에 비유한다면, 설교는 그것을 스크린에 크게 확대시켜 비추어 주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덜 분명한 이해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해석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영감된 말씀'처럼 무오하거나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조명'은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성경에 일치된 해석과 적용은 설교자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다<sup>5)</sup>.

그래서 설교는 단순한 강의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에 모인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설교'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sup>5)</sup>'설교'를 '강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의미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된다.

<sup>5)</sup>칼빈은 이것에 대하여 "만일 가르침이 성경에 충실하다면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였다. T.H.L. 파커, '칼빈과 설교', p.46.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성경적인 조언이나 상담 또는 권면 등도 넓은 의미의 예언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게가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강해설교'야말로 가장 무게 있고 설득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설교의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기술'로서의 설교이다.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나 제스처어를 흉내내는 '설교 테크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절한 말씀으로 번역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는 연습과 훈련에 의하여 자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부단한 연습과 훈련이 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한다<sup>6)</sup>.

여기서 왜 우리는 목회자가 자신의 설교에 대하여 조금하게 서둘러서는 안되는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설교자는 두개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일단은 성경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설교를 듣는 청중의 세계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설교자의 인격적인 성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설교자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경과 자신의 시대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 성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한평생 애쓰고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설교자는 말씀의 종(servant of the Word)이다. 설교자는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오늘 시대에 적절하게 증거하는 것을 한 평생의 과제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필요를 좇아다니느라 말씀을 연구할 기회를 놓쳐 버리고 말 것이다.

강해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여 오늘 시대에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것은 설교자의 영적 성숙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sup>6)</sup>로이드 존스 목사는 설교의 요소를 설교문(sermon)과 설교 행위(preaching)로 나누어서 설교문을 만드는 데는 많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지만 설교 행위는 그 사람의 천부적인 자질과 성령의 기름부으심(unction)에 좌우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스필전 목사는 목사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태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음향 시설이 없는 시대에 많은 청중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폐활량이 중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 넓은 가슴은 더 이상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

### 3. 강해설교의 여러 입장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일도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

#### (1) 귀납법적 강해 설교(상황적 강해설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황적 강해설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귀납법적 강해설교는 우선 귀납적인 성경 공부와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성경을 연구할 때 주제별로 하지 않고 성경 본문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귀납법적 강해설교」라고 하는 것은 강해설교를 할 때 무미건조하게 성경 본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황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방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많은 강해설교가 지나치게 연역법적이어서 청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이 귀납법적 강해설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납법적인 강해설교에서는 서론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론을 통하여 설교자와 청중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귀납법적인 강해설교는 현재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의 예언적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이며 특히 청중들은 강단에서 바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7) 풍요적 성경 해석의 대가로 뽑히는 오리겐은 훌륭한 강해설교자였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전달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집어넣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설교하는 것은 강해설교가 아니다. 강해설교는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아서 오늘 상황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다.

8) 이 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요단, p.133.

그러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된다. 즉 단순히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이나 주간지를 읽기만 하면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기느냐 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바로 듣지 못하면 아무리 주간지나 시사잡지를 뒤적이라고 해서 상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귀납법적 강해설교는 강해설교에 대한 훈련을 많이 쌓은 설교자가 보다 설득력 있게 청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설교를 더 맛있게 요리하는 과정이지, 처음부터 성경과 이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다 잘 알기는 어렵다.

즉 강해설교가 훈련되어 갈수록 시대를 보는 눈이 생기고, 더욱 적절하게 그리고 현실성 있게 성경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경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된다.

#### (2) 구속사적 강해설교

이 입장은 칼 발트나 30년대의 주관주의에 대한 반발로 화란의 칼빈주의자들 중심으로 일어난 성경 해석 운동이다. 스킨드는 발트의 변증신학이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부정함으로 바른 성경 해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고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일한 본문에 대하여 성경을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성경이 임의로 해석되어지는 주관주의도 배격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고 또 구속사적인 설교이다.

특히 이 구속사적 강해설교는 역사적인 본문에서 어떤 교훈적인 적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며 특히 성경의 전체성과 통일성을 강조한다.

정 성구 교수는 "성경의 통일성을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가능하다. 구속사는 성경의 일관된 구조로서 통일성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무수히 많은 역사의 조립이나 편집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역사,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sup>9)</sup>.

구속사는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줄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9) 정 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총신대출판부, p.366.

그리고 성경 본문이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마음대로 요리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구약 본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나 가르침 없이 순전히 미래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만 내포한다고 말할 때 구약 성경이 가지는 풍성한 의미를 많이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작 구속사적인 해석이 전혀 억지나 무리가 없는 완전한 해석인가 하는 것에도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 (3)본문 그리스적 강해설교 (연역법적 강해설교)

이 방법은 어떤 주어진 성경 본문에서 먼저 신학적인 교리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교리를 먼저 설명한 후 그 교리를 청중들에게 적용시키는 강해설교 원리이다.

따라서 본문→교리→적용의 구조이다. 이 원리는 복음적 성경신학이 대두하기 전의 전통적인 강해설교 원리였고 특히 청교도 목사들이 많이 사용하였던 설교 방법이었다.

로이드 존즈 목사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구절이나 부분을 참으로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특정 교리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교리는 물론 성경 메시지의 한 부분입니다. ...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sup>10)</sup>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설교 방법은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본문에 적합할 것 같다. 또 한 절의 말씀으로 여러 편의 설교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사실 청교도 목사들은 성경의 위대한 주제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긴 자들이다. 그들은 참으로 경건한 목회자들이요 신학자들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성경 신학에 대한 안목이 열림으로 이런 조직신학의 틀을 가지지 않아도 본문 자체의 의미를 귀납적으로 연구하고 설명함으로써 더 자연스럽게 성경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특정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서 그 본문이 가지는 교리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본문은 교리에 의하여 통제되고 설명되어질 때 바르게 해석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 (4)역사적 강해설교

10)정 근두, 로이드 존즈 설교론, 여수론, p. 159.

성경 각권을 그 시대의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본문이 그 시대의 상황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살펴 본 후 그것을 오늘 시대에 적용하는 설교방법이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해석자는 본문의 첫 청취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그 본문을 듣고자 하여야 한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오늘날의 교회와 그 첫 청취자들 사이에 있는 간격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sup>11)</sup>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대하여 외쳐진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구약 교회 포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구체적인 말씀이다.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이 주어졌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 오늘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구체적이면서도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대의 구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 본문에 의하여 추론할 수밖에 없다<sup>12)</sup>. 그러나 성경의 무오와 저자의 진실성을 믿는다면 성경 본문을 귀납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추론하게 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여러 강해설교 원리들은 결국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가하는 데서 나온 노력이라고 생각되며, 모두 다 그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성경 본문의 문학적인 장르에 따라서 해석의 원리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원리만 옳다고 고집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본문의 성격과 청중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강해설교 준비

로이드 존즈 목사는 설교를 설교문(Sermon)과 설교행위(Preaching)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바른 설교를 위해서 설교 자체를 준비하는 것과 준비된 설교를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

11)시드니 그레이다누스, 권 수경역, 학생신앙운동, p.373-374.

12)이러한 추론에 대해 고신대 고재수 교수의 강한 반론이 있다. 위의 책 서문.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설교 준비 없이 성령이 주시는 순간적인 감동으로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설교자는 감동적인 설교를 하기 이전에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설교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훌륭한 설교의 반은 이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설교자는 설교 준비가 잘 되었을 때 확신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할 때에는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변명할 준비부터 하려고 하게 된다.

**(1) 주해설교와 강해설교의 차이**

강해설교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해설교와 강해설교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해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해설하고 적용하는 설교이다. 그러나 강해설교는 주해설교에 비하여 한번 더 가공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강해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의 통일성이다.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사상이나 교훈을 모두 다 설교하지 않는다. 설교자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통일성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본문을 주해하여 본문이 말씀하는 중심된 사상을 찾아 낸 후 거기에 비추어 본문의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강해설교에서는 과학성과 예술성이 모두 필요하다.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정확한 연구이다. 그러나 본문 이해만 잘했다고 해서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교자는 그 본문의 중심 메시지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통일성 있는 하나의 설교를 창조해 내어야 한다. 여기에 설교자의 예술성이 요구된다.

설교는 단순한 많은 내용의 나열이 아니다.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 있게 그 주제를 전개시켜 나가서 끝에 가서는 그 음악을 완결 지어야 하는 것이다. 설교의 음악성, 바로 여기에 강해설교와 주해설교의 차이가 있다.

강해설교자는 본문을 과학적인 정신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한 후 그 중심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단순히

본문의 내용을 청중들에게 던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청중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시켜서 본문이 의도하는 목적을 향해 청중들을 끌고 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강해설교가 가지는 힘이다.

**(2) 설교 본문의 선택**

설교 준비하는데 있어서 설교 본문의 선택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설교 본문만 선택되면 주석을 참고하거나 본문을 주해하는 등의 본격적인 설교 준비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교 본문의 선택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통일성 있는 본문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성경 본문 중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따로 떼어 내어 하나의 설교를 만들 것인가 하는 선택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다.

‘본문’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text’는 라틴어 ‘texere’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라틴어의 뜻은 ‘천을 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마치 천처럼 짜여진 짜여진 한 부분이기에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마음대로 떼어 내면 옷 전체가 손상되게 된다. 따라서 전체 천에 손상을 주지 않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나의 본문으로 택할 것인가 하는데 주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설교 본문은 문맥이나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손상을 주지 않는 충분한 범위를 택해야 한다.

설교 본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임의로 선택하지 않고 성경 하나를 택해서 충실하게 강해해 나간 대표적인 설교자가 칼빈이다.

물론 연속된 본문을 설교해야 강해설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칼빈처럼 하나의 성경을 택해서 연속적으로 설교해 나갈 때에 때때로 본문을 선택해야 하는 고충을 덜 수도 있고 성경 내용 안에 깊이 들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청중」이다. 연속 본문 설교는 자칫 청중들로 하여금 지루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때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설교를 놓칠 수도 있다.

또한 성경을 연속적으로 강해해 나가면 느끼겠지만 성경 본문은 축복의 말씀보다는 경고와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청중들은 좌절감을 경험하기 쉽다.

로이드 존즈 목사는 로마서나 에베소서같은 서신서를 택해서 14년간이

나 연속해서 설교하면서 성공을 거둔 뛰어난 연속본문 강해설교자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방법 외에도 꾸준히 복음 설교와 교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제목 설교를 병행하였다.

찰즈 스펀전 목사는 연속적으로 본문을 설교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때 본문을 인도 받아 설교 준비를 하였고 이미 한번 설교한 본문은 다음에 설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스펀전은 신약의 대부분을 설교할 정도로 부지런한 설교자였다.

### (3) 본문 주해

본문을 주해하는 것은 엄밀하고도 과학적인 작업이다.

우선 자신이 본문을 주해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할 수 있으면 좋은 주석서를 참고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사실 일선 목회자들이 성경 원문에 깊은 지식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성경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은혜스러운 설명이 많은 주석보다는 정확한 주해를 하고 있는 주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은 본문을 억지로 내 생각에 맞추려 하지 말고 본문과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왜 너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런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니?' 하는 식의 질문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나 사상의 기록이 아니고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기 위하여 최초의 청중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다시 말해서 본문이 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찾을 필요가 있다.

설교자는 자신의 주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성경 전체의 메세지와 배치된다면 하나의 기묘한 상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다른 건전한 주석가들의 해석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 (4) 설교 준비

설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물론 본문은 하나를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설교자는 그 많은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단순한 성경공부와와의 차이이다.

성경공부는 본문이 말하는 여러 가지에서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강해설교 준비는 본문의 내용을 하나의 대지로 요약하는데서 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을 하나의 대지로 요약하지 못하면 강해설교를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통일성을 잃어버린 산만한 내용의 제시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대지를 만들고 나서는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록해 보아야 한다. 내가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이며 나는 이 본문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가 하는 동기가 점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는 자기 자랑이나 꾸밈으로 끝나게 될지 모른다. '이 본문을 가지고 교인들의 죄를 책망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혼동을 겪고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가?, 복음의 비밀을 선포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설교의 목적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sup>13)</sup>.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설교 준비에 있어서 대지의 작성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둑에 있어서의 포석과 같기 때문이다. 설교 대지는 설교의 뼈대이다. 아무리 설교의 내용이 좋아도 대지를 잘못 잡으면 설교가 비뚤게 나갈 수 밖에 없다.

어떤 훌륭한 설교자들은 대지 없이 설교를 한다. 그런 경우 대지에 의하여 설교가 중단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설교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설교자 자신의 훈련과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교대지는 꼭 필요하다.

설교의 대지는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경 본문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성이 있고 조직적이다. 그러므로 대지는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의도하는 목적으로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대지를 사용하는 것

13) 이 점을 강조한 학자가 J.E.아담스이다. 그의 책의 번역된 제목은 「설교의 시급한 과제」이지만 원 제목은 「Preaching with Purpose」이다. 그는 이 책을 저술하는 목적이 '설교에서 목적이 차지하는 막중한 역할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이제부터 설교를 할 때에 그 점을 꼭 의식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말한다. J.E.아담스, 설교의 시급한 과제, 이 길상 역, 아가페, p.16.

이다. 따라서 대지 안에 논리적인 발전과 연관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대지가 정해지고 나면 서론을 작성한다.

서론은 청중들이 본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다. 설교자는 본문을 여러 차례 묵상하고 연구했지만 청중들은 전혀 예비 지식 없이 성경의 문 앞에 서 있다. 이들을 성경의 세계 안으로 자연스럽게 초청하려면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론은 본문에 대한 청중들의 관심을 끌 뿐 아니라 설교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갈 것인지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서론이 준비되었으면 연구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과감하게 설교를 작성해 나가야 한다. 물론 여러 차례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강해설교는 자기가 발견한 모든 내용을 한 설교 안에도 다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정한 목적을 살리기 위해 청중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은 그것이 아무리 아까워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통일성 있는 설교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설교준비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설교 본문의 선택
- ② 본문 연구 (주해 작업)
- ③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
- ④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
- ⑤ 대지 작성
- ⑥ 설교 서론의 작성
- ⑦ 설교문의 작성

## 5. 강해설교의 전달

설교문이 작성되었다고 해서 설교 준비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 작업의 결과물은 단순히 종이 위에 기록된 문자에 불과하다. 성령께서 그 위에 바람을 불러 넣으셔서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

설교자는 설교문의 준비가 끝난 후 자신이 이 설교문만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 민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중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설교를 하면서 아무리 설교문이 충실하게 잘 준비되었어도 형편없는 설교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설교 준

비는 충분치 않았지만 알 수 없는 감동으로 놀라운 설교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설교문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된다. 물론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특히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그 준비된 내용과 설교자 자신의 인격을 도구로 사용하시며 때로는 그 준비된 설교가 쓸모없을 정도로 설교자를 주장하여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한다.

### (1) 설교의 불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주시는 확신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이것이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하여 청중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죽어도 이 말씀은 선포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빠지면 설교는 하나의 강의에 불과하다.

설교와 강의의 차이가 무엇인가?

강의는 정보의 전달이다. 강의를 듣는 자는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필기하거나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설교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려 하시는 말씀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진정 나를 통하여 청중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확신이 들 때 그의 마음에는 뜨거운 감동이 생길 것이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불'이 빠지면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의 강의가 되어 버리고 만다.

### (2) 영중의 준비

설교자는 본문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청중들은 전혀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하다. 만일 설교자 혼자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청중들은 전혀 거기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설교자는 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청중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설교자와 교인 모두가 기도를 해야 한다.

사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설교자는 설교

하기 전에 심하게 긴장을 한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청중들을 대표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담대해지는지 모른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청중들도 설교를 듣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한다. 예배 시작전에 미리 와 그 날의 설교 본문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예배 전에 무슨 과격한 논쟁 같은 것을 가족들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충격이 있으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청중들은 스스로 마음을 준비해야 하며 설교가 끝난 후에도 곧 바로 여러 가지 복잡한 교제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지 말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 (3) 원고 작성과 연변

우리는 언제 가장 논리적이며 생각이 잘 정리되는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글을 쓸 때 가장 논리적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생각이 더 잘 정리되는 사람도 있다. 연변이 좋지 못하고 사고가 체계적이지 못한 사람은 원고를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 잘 준비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있으면 설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지고 주변의 환경에 신경이 덜 쓰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고력이 뛰어나서 모든 내용을 문장화하지 않고 대략적인 것만 적어서 설교를 할 때 오히려 더 자유스럽게 잘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다고 원고를 작성하지 않는다 해서 대충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단에 서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준비는 똑같이 하되 단지 모든 것을 문장화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자신의 연변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은 청중의 반응이 좋지 않거나 설교에 방해되는 요인이 생길 때 설교를 완전치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각오해야 할 것이다.

설교문을 외우는 것에 대하여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설교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교의 내용 자체를 여러 번 읽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설교단에 올라가는 것은 중요하다.

조지 헛필드의 설교를 좋아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헛필드가 이미 한번 한 설교를 재탕하는 경우와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해본 설교는 충분히 소화되어 있어서 자신감 있게 설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설교의 예화와 결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예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수집을 하는 것 같다. 사실 청중들과 설교자 사이를 엮어줄 수 있는 좋은 매개체는 좋은 예화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때로는 설교 내용보다는 예화만 남는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결과를 낳는 이유는 너무나도 특이한 예화를 골라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예화는 본문을 열고 그 안을 함께 들여다 보기 위한 창문이요 매개체에 불과하지 예화가 설교를 대신해 버린다면 그 설교자는 스스로 자신의 설교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특별하고 감동적인 예화는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화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예화는 어느 것도 특별하거나 감동적인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예화들은 청중들을 보다 깊은 진리의 자리로 이끄는 훌륭한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설교에서 결론 부분은 이미 설교가 피크에 올라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설교자는 결론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미리 작성해 놓은 결론에 지나치게 구애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힘껏 그날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강조하고 확인하면서 설교를 마치면 좋다.

## 6. 결론

존 스토틀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마친 후 한번도 후회해 보지 않은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이 점은 좀 더 강조할 걸' 하는 후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서 감동적인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내 수준에서 잘한 것이지, 너무나도 부족한 설교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는 자주 설교자들의 전기를 읽는다고 했다.

특히 자기가 설교를 잘 한 것 같아서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조지 헛플드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를 읽으면 자신의 분수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설교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거인들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그런 마음을 지속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자신을 떠나지 않게 붙잡았던 것이다.

설교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 한다. 아무도 감히 자신을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선배 설교자들처럼 설교할 수 있게 되도록 죽을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쳐 복종시켜 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개 신학을 졸업하고 몇 년 안에 그 목회자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심은대로 거들 것'이다(갈 6:8).

판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위하여 수년을 목에서 피가 나는 훈련을 쌓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바른 소리를 내기 위하여 이 소리에 전념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위하여 심는 자는 말씀을 거들 것이다. **고려신학보**

## 변화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연구

강 강영 (신대원 3)

1장/서론	2장/변화산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3장/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4장/하나님의 속성과 자기 백성을 연결시키시는 성령	
5장/결론	※참고문헌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동기.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실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를 알기를 원하신다.

1) 그리고 그는 우리의 사랑, 예배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며, 그와 아주 가까워지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그를 사랑하거나 그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2)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3)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알지 못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

1. 이 논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리처드 디킨, 존 R.W. 스토트(하나님의 속성과 성령 충만), 박권섭역, (서울: 백합출판사, 1985), 1.

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上] 김중흥, 신유복, 이종성, 한철하 공역